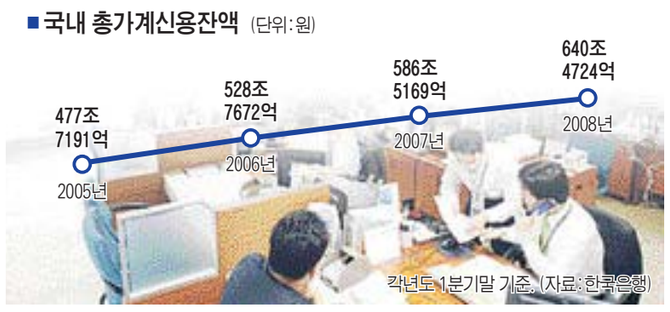
"가계 빚 위험지수 4년來 최고"

韓銀,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고물가 여파 실질소득감소·대출금리 인상

中企 신용위험 전망치도 석달새 10P 상승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는 은행들이 크게 늘었다. 또 중소기업부문의 신용위험도 3분기에 더 높아지면서 전체 신용위험이 큰 폭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5로 전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4년 1분기(29) 이후로 4년여 만에 최고치다.

신용위험 전망지수가 플러스면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마이너스이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25% 많았다는 뜻이다.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작년 4분기 9에서 올해 1분기 13으로 높아진 뒤 2분기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물가불안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대출금리 인상, 고용부진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은행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 역시 2분기보다 10포인트 높은 44로 2003년 3분기(50)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작년 4분기 17에서 지난 1분기 26으로 높아졌다가 2분기에는 24로 소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가계 등을 모두 합친 종합 신용위험 전망지수는 34로 2분기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안정분석팀 김명석 과장은 "증가 폭에 있어서는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지수가 컸고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부문의 신용위험도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은 중기 및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출 문턱은 소폭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의 주택부문 대출태도지수는 -6에서 3으로 플러스 전환했고,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 대출태도 지수도 -3에서 0으로 중립 수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22에서 3분기 -19로 다소 완화됐다.

가계대출은 주택부문의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조금 늘어나고, 기업대출의 경우 그 정도는 소폭 완화하겠지만 경제여건 악화, 순이자마진 하락 때문에 신중한 대출태도가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우유값도 인상 '도미노'

서울우유 이달부터 50~100원씩 올리기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달부터 흰우유와 가공우유 등 일부 제품 가격을 50~100원씩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흰우유 1ℓ 들이는 1천750원에서 1천850원으로 올랐고 커피우유와 초코·딸기우유(각각 200㎖) 등 가공우유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씩 인상됐다.

서울우유는 유가 급등으로 물류비 등 제반비용 부담이 커져 제품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다른 유가공업체들은 올해 초에 흰우유를 1ℓ에 1천850원으로 100원 올리는 등 제품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편 낙농가 협의체인 낙농육우협회가 원유 공급가격인 기본유대(1ℓ 당 584원)를 25% 이상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유가공업체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어 하반기 중 제품가격이 최소 1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환율 안정 위해 외환보유고 동원"

정부-한은, 보유외환 민간기업 대출 검토 안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최근 외환시장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시장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매도개입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정부의 달러 보유고는 세계 5, 6위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너무 많아 비용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시장안정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보유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풀겠다는 뜻은 아니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또 보유한 외환을 민간에 대출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원자재 수입업체들에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으나 보유고를 직접 대출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나 정부 모두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인도 및 베트남의 중앙은행들이 각각 자국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나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7일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의 홍콩 소재 스튜어트 뉴핸 애널리스트는 "그들의 개입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꽁치통조림 이물질

동원F&B, 늑장 보고

가중 처벌 가능성

동원F&B가 꽁치통조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달 27일 소비자로부터 꽁치통조림에서 붉은 색의 가느다란 벌레모양의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식약청에 4일 보고했다.

꽁치통조림 속 이물은 어류기생충의 일종인 '구두충'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신진물산이 지난달 3일 제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1. 6. 2까지'로 표기돼 있다.

식약청은 현재 이 제품을 확보해 정확한 이물을 확인 중에 있으며 회사는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 5만2천500캔을 대상으로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동원F&B는 이물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보고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또 지난달 초에도 꽁치통조림(유통기한 : 2011. 6. 2)에서 구두충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으나 당시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관계 당국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승무원 짐도 다이어트 고유가 극복을 위해 대한항공이 7일부터 '승무원 휴대가방 무게 2kg 줄이기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에서 승무원들이 비행에 앞서 휴대수하물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의 가방 무게를 2kg 감량할 경우 항공기 무게가 줄어들어 연간 5억5천만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계 "기름값 아끼겠다"

8개 업종 대표 4년간 8조4천억어치 절감 선언

에너지 소비가 많은 8대 산업 대표들이 2012년까지 매년 석유 18억ℓ를 절약해 8조4천억원을 절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자동차업계는 LPG경차와 LPG하이브리드차 양산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시멘트·제지·전자·섬유·자동차·조선 등 8개 업종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8개 업종단체 대표들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석유 91억2천만ℓ(연간 18억2천만ℓ)를 절약해 모두 8조4천억원(두바이유 배럴당 140달러, 원·달러환율 1천50원 기준)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제품생산 단계에서는 에너지 원단위(原單位, 단위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를 2012년까지 15% 개선해 에너지 190만toe(석유환산t)를 절약하기로 했다. 190만toe는 석유로 환산시 28억8천만ℓ에 이르며 이는 8대 업종의 지난해 에너지 실질 사용량인 2천534만toe의 7.5% 수준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는 2012년까지 모두 2조7천925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절약시설과 고효율기자재, 폐열 발전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매스와 신재생섬유 등 대체원료와 공정고도화 등 에너지 저감 공정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는 수송과 가정 등의 부문에서 2012년까지 412만1천toe(석유환산시 62억4천만ℓ)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애초 내년 3분기로 예정했던 LPG경차 양산시기를 내년 1분기로 앞당기고 준중형급 LPG하이브리드차 양산시기도 내년 10월에서 내년 7월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1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고유가가 교통사고 줄였다

차량 운행 감소… 車 보험사 손해율 60%대 하락

올해 들어 대부분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수치로, 낮아질수록 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된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고(高)유가로 차량 운행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3~8%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손해보험사와 4개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등 14개 차보험사의 월별 손해율을 따져보면 1월의 손해율은 지난해 77.2%에서 올해 71.5%로, 2월은 76.1%→69.2%, 3월은 77.9%→69.7%로, 4월은 72.8%→69.7%, 5월(가마감 수치)은 74.4%→67.5%로 모두 하락했다.

업체별로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가장 양호한 손해율을 보여 지난해 1~5월엔 69.6%~72.3%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월 69.2%에서 5월 무려 63.2%까지 떨어지며 꾸준히 하락세다. /연합뉴스

"유가 배럴당 170달러땐 올 성장률 4% 미만 하락"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4%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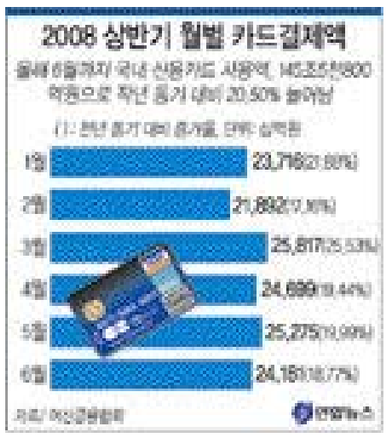
김 차관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유가가 120달러일 때 올해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예상했는데, 유가가 오르면 (성장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다만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성장률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유가 흐름을 보고 정부 판단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그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938원에서 지난주 말 1천50원까지 올랐는데 이런 흐름이 향후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상적인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기대심리 등에 의해 변동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해 "하반기 물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장안정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거래세 인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면제 등은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물가 속에도 카드사용 '펑펑'

상반기 145조원 20% 늘어



올해 상반기의 불경기 와중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냈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서비스 제외)은 145조5천8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50% 늘었다.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보면 3월이 작년 동기 대비 25.53% 급증한 25조8천1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전년비 17.16% 증가한 21조8천1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6월 카드 사용액은 24조1천81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77% 늘어 4월(19.44%)과 5월(19.99%)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올 들어 카드 결제금액이 늘어난 1차적인 원인은 생필품 가격이 올라 명목 사용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5% 급등해 1998년 11월(6.8%) 이후 9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7.0% 올랐고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은 무려 10.5% 급등했다. 카드사들이 장기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할인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린 것도 결제금액 급증에 한몫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판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늘림에 따라 전체 소비에서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경기하강 속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한 카드 소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케이티에프풍암프라자	SHOW매장 정규직 사원(판매 및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9	062-654-7100
금호생명	[광주 서구]금호생명 순수인바운드 21기 상담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10	02-518-3250
동호테크	기능직 및 기술직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7/10	062-944-7009
상아덴탈	정규직 치과병원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2-652-7418
한국건설	총무/인사 신입/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2-670-0211
㈜광주광역정보센터	[웹디자인/웹프로그램/응용프로그램]2008 하반기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2-224-8564
㈜원솔루션	경리, 사무, 문서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945-5775
아이지미술	4년제미대졸 미술방문교사	대졸/경력무관	1200~1400	07/14	062-382-7179
프리머스에이치알㈜	우산동 SK텔레콤 114상담원 채용중-7/14일 서류마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7/14	062-383-1756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정규직 사원(비파괴검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14	062-369-0790
대명하이텍㈜	자동제어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953-6444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7	062-360-0503
삼성전자서비스㈜GCA	[광주/전북/제주]삼성전자서비스 A/S엔지니어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1	062-971-464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